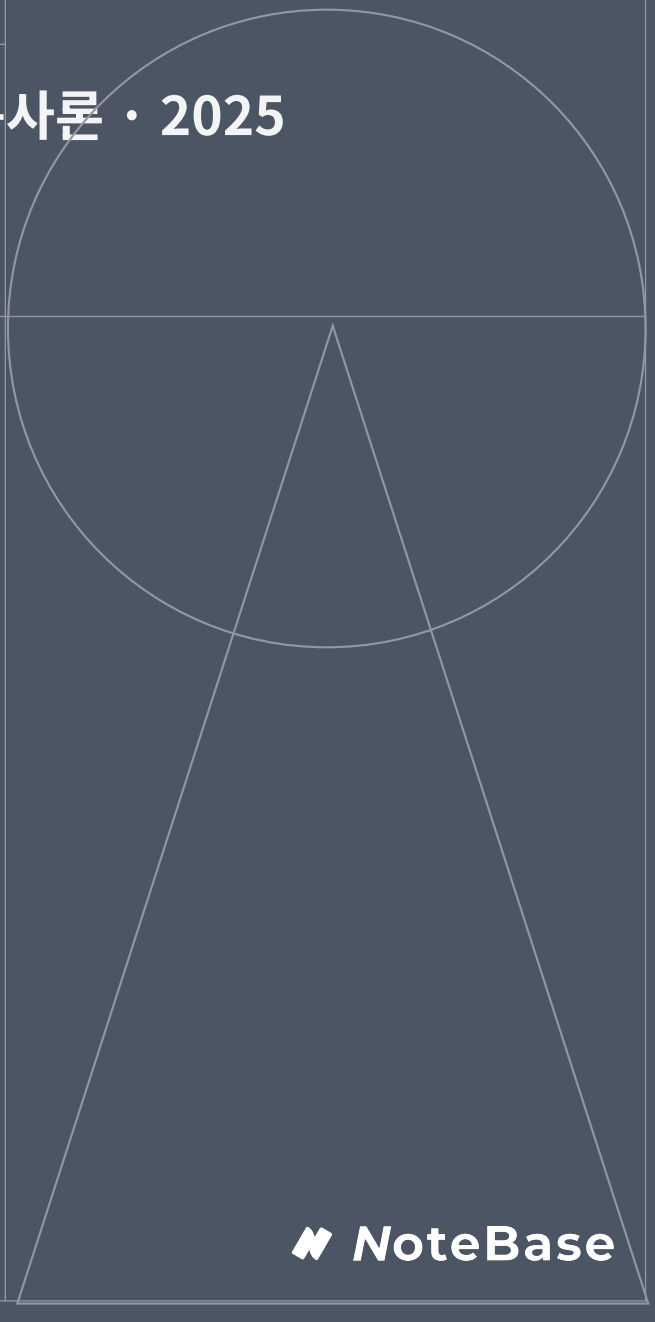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5

공무원/군무원/9급 · 정보봉사론 · 2025

1.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한 세대의 컴퓨터 기술로부터 다음 세대로, 또는 한 가지 조합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설정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옮기는 것

① 기술보존
② 마이그레이션(Migration)
③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④ 에뮬레이션(Emulation)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자료를 장기 보존하는 방법 가운데 마이그레이션, 기술보존, 인캡슐레이션, 에뮬레이션의 정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이그레이션: 디지털 자료를 한 기술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는 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정기적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자료의 이전'이다.
기술보존: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 자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원래 기술 환경의 보존'이다.
인캡슐레이션: 디지털 자료와 함께 그 자료를 해석·재현하는 데 필요한 메타데이터, 규격 등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 보존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자료와 관련 정보의 묶음'이다.
에뮬레이션: 새로운 시스템에서 과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원래 자료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키워드는 '옛 환경의 모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문의 정의를 '기술보존'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기술보존은 기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 자체를 유지하는 방법이며, 제시문처럼 자료를 다른 기술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다.
② O — 마이그레이션은 기술의 세대가 바뀌거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이 달라질 때 디지털 자료를 새로운 환경으로 정기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제시문의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 제시문의 정의를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인캡슐레이션은 디지털 자료와 그 자료의 해석·재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함께 묶어 보존하는 방법이며, 환경 사이에서 자료를 옮기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다.
④ X — 제시문의 정의를 '에뮬레이션'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에뮬레이션은 새로운 시스템에서 과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을 모방하는 방법이며, 자료 자체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다.

오답 포인트

'다른 환경에서도 자료를 이용하게 한다'는 목적은 여러 보존 방법에 공통적이므로 목적만 보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옮긴다'는 동작이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를 새 환경으로 옮기면 마이그레이션, 원래 장비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 기술보존, 자료와 설명 정보를 묶으면 인캡슐레이션, 옛 실행 환경을 새 시스템에서 흉내 내면 에뮬레이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마이그레이션은 자료 이동, 기술보존은 환경 유지, 인캡슐레이션은 정보 묶음, 에뮬레이션은 환경 모방이다.

NoteBase

2.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 자료입수 및 (㉢)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① ㉠ 공중, ㉡ 참고서비스, ㉢ 정보문해력
② ㉠ 이용자, ㉡ 참고서비스, ㉢ 정보해득력
③ ㉠ 공중, ㉡ 이용서비스, ㉢ 정보해득력
④ ㉠ 이용자, ㉡ 이용서비스, ㉢ 정보문해력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서관법」상 도서관서비스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서비스의 제공 대상과 시설·정보기기에 결합하는 표현, 이용지도교육으로 강화하려는 능력을 조문 그대로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도서관서비스 =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정보해득력 =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핵심 구분

「도서관법」 제3조 제3호는 도서관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따라서 빈칸은 차례대로 ‘공중－이용서비스－정보해득력’이다. ‘참고서비스’는 대출·열람과 함께 앞부분에 이미 열거된 독립된 서비스이고, 시설과 정보기기에는 ‘이용서비스’가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공중'은 맞지만, ㄴ의 '참고서비스'와 ㄷ의 '정보문해력'이 조문과 다르다. 참고서비스는 대출·열람과 함께 앞에서 열거되고,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에는 이용서비스가 연결된다. 조문상 이용지도교육이 강화하려는 능력은 정보해득력이다.
- 틀린 표현: 참고서비스, 정보문해력
- 올바른 표현: 이용서비스, 정보해득력

② X
- ㄷ의 '정보해득력'은 맞지만,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공중'이고,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에 관한 것은 '참고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서비스'이다.
- 틀린 표현: 이용자, 참고서비스
- 올바른 표현: 공중, 이용서비스

③ O
- '공중－이용서비스－정보해득력'은 「도서관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와 모두 일치한다.

④ X
- ㄴ의 '이용서비스'는 맞지만, ㄱ의 '이용자'와 ㄷ의 '정보문해력'이 조문과 다르다. 법문은 제공 대상을 '공중', 강화하려는 능력을 '정보해득력'이라고 규정한다.
- 틀린 표현: 이용자, 정보문해력
- 올바른 표현: 공중, 정보해득력

오답 포인트

'참고서비스'와 '이용서비스'의 위치를 바꾸거나, 일상적으로 익숙한 '이용자·정보문해력'을 법문 표현인 '공중·정보해득력'으로 착각하기 쉽다. 특히 참고서비스는 이미 '대출·열람·참고서비스'라는 묶음에 들어 있으므로 ㄴ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의문의 구조를 '누구에게: 공중 → 무엇을: 대출·열람·참고서비스 → 시설·기기는: 이용서비스 → 교육 목적: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의 순서로 대조한다. 의미가 비슷한 일상 용어보다 조문에 쓰인 정확한 표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서관서비스의 세 빈칸은 '공중이 이용하고 정보해득력을 기른다'로 연결한다.

NoteBase

3.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헌의 표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각 키워드가 탐색의 기준어가 되도록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각 키워드에 표제를 기입하는 순열표제 색인의 대표적인 색인이다.

① 분절주제색인　② NEPHIS
③ KWIC색인　④ BTI색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헌의 표제에서 추출한 각 키워드를 접근점으로 삼고, 키워드와 표제의 문맥을 함께 보여 주는 자동 색인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WIC(Key Word In Context) 색인은 표제의 의미 있는 단어를 각각 키워드로 삼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고, 각 키워드의 앞뒤에 원래 표제의 문맥을 함께 제시하는 자동 색인이다.
분절주제색인은 전치사나 연결어가 포함된 자연언어 주제문을 논리적으로 변형하여 주표목과 종속표목으로 조직한다.
NEPHIS는 개념 사이의 의존관계를 중첩구로 표현한 입력 문자열을 컴퓨터가 순열하여 주제색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BTI 색인은 관계분석과 패싯 분석을 바탕으로 통제된 주제표목을 구성하고, 연쇄절차로 도치 참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방식을 '분절주제색인'으로 본 점이다. 분절주제색인은 표제의 여러 단어를 기계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언어 주제문의 관계 구조를 분석하여 주표목과 종속표목으로 조직하는 색인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방식을 'NEPHIS'로 본 점이다. NEPHIS는 색인자가 개념의 중첩·의존관계를 부호화한 입력 문자열을 컴퓨터가 순열하는 중첩구 색인 시스템이다. 올바르게는 각 표제 키워드를 문맥과 함께 접근점으로 만드는 방식이 KWIC 색인이다.
③ O — KWIC 색인은 컴퓨터가 표제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를 접근점으로 하여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며, 그 키워드가 포함된 표제 문맥을 함께 제시한다.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제시문의 방식을 'BTI색인'으로 본 점이다. BTI 색인은 단순한 표제어 자동 추출이 아니라 관계분석과 패싯 분석으로 주제표목을 만들고 연쇄절차로 참조를 전개한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의 방식이 KWIC 색인이다.

오답 포인트

NEPHIS와 BTI도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순열·연쇄 절차를 사용하므로 KWIC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결정적 표현은 '표제에서 여러 키워드 추출', '각 키워드가 탐색의 기준어', '각 키워드에 표제를 기입'이다. 이는 키워드를 표제의 문맥 안에서 보여 주는 KWIC의 전형적 구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제의 각 의미어를 접근점으로 만들고 원래 표제의 앞뒤 문맥을 함께 제시하면 KWIC으로 판단한다. 키워드를 표제 밖에 따로 놓으면 KWOC, 개념 관계를 분석해 중첩구나 통제 주제표목을 구성하면 NEPHIS·BTI 계열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KWIC은 '키워드가 문맥(Context) 안에 있고, 표제의 각 키워드가 접근점이 된다'로 기억한다.

NoteBase

4. 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이론은 이용자 협조, 독자 상담지도 등으로 표현되던 정보서비스 형성 초기의 이념을 이어받은 이용자 교육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② 교육이론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봉사는 정보의 직접 제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 핵심이다.
③ 참고과정이론은 질문에서 해답에 이르는 전체의 참고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이용자와 사서 사이의 관계, 질문과 해답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④ 중도이론은 교육이론에서 참고과정이론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도기적 이론이다. 정보를 얻거나 찾도록 돕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의 보수이론·진보이론·중도이론·참고과정이론을 봉사의 수준과 접근 방식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보수이론(교육이론·최소이론): 사서가 해답 자체를 대신 제공하기보다 이용자가 자료와 탐색 도구를 스스로 이용하도록 교육하고 최소한으로 돕는 입장이다.
진보이론(자유이론·최대이론):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충족되도록 사서가 해답을 직접 제공하고 최대한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이론: 보수이론과 진보이론을 절충하여 이용자와 상황에 따라 교육 또는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선택하는 입장이다.
참고과정이론: 질문에서 해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용자·사서·정보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용자 협조·독자 상담지도라는 초기 이념을 계승하고 이용자 교육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자유이론이 아니라 보수이론 또는 교육이론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인 '자유이론'은 '보수이론(교육이론)'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도서관이 모든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직접 정보제공을 핵심으로 한다는 설명은 교육이론이 아니라 진보이론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인 '교육이론'은 '진보이론(자유이론·최대이론)'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참고과정이론은 질문 접수에서 해답 제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이용자와 사서의 관계 및 질문과 해답의 관계에서 공통 양상을 찾아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④ X — 중도이론을 '교육이론에서 참고과정이론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이론'이라고 한 부분과 결과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진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중도이론은 보수이론에서 진보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절충적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이용자 교육과 직접적인 정보제공을 선택하며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까지 책임지는 입장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이론의 설명 자체보다 그 앞에 붙은 명칭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①의 '이용자 교육'은 보수이론, ②의 '직접 제공'과 '모든 요구 충족'은 진보이론의 신호이며, ④의 중도이론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절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면 보수이론, 해답 자체를 최대한 제공하면 진보이론, 상황에 따라 두 방식을 절충하면 중도이론, 질문부터 해답까지의 단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참고과정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수는 방법 교육, 진보는 해답 제공, 중도는 상황별 절충, 참고과정은 단계와 상호작용 분석이다.

NoteBase

5.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 연구(출판물, 데이터, 물리적 샘플, 소프트웨어 포함)와 그 보급을 아마추어 또는 전문가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다.

②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발전하는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지식이다.

③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그리고 현대 과학이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오픈 소스 운동의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④ 현재의 기술로는 수집, 저장, 관리, 서비스가 어려우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형태가 다양하거나 생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른 특징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빅데이터의 핵심 특징인 규모·다양성·속도와 개방과학 관련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빅데이터: 기존 기술만으로 수집·저장·관리·서비스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며, 생성 속도가 빠른 데이터이다. 핵심 구별 기준은 규모(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의 3V이다.
오픈 사이언스: 연구 과정과 성과를 개방하여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학 활동이다.
오픈 지식·오픈 데이터·오픈 소스: 지식과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접근·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과학 연구와 연구 성과를 전문가와 사회의 여러 계층이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오픈 사이언스 운동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대중에게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운동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X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지식을 공유·발전시킨다는 내용은 데이터의 규모나 생성 속도가 아니라 지식의 개방성과 협업을 설명한다. 틀린 표현은 이를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발전하는 개방 지식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X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데이터 처리를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연구 자원과 도구를 개방하는 개방과학 생태계의 요소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빅데이터 자체의 정의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오픈 액세스·오픈 데이터·오픈 소스는 연구 성과,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공유에 관한 개념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기존 기술로 수집·저장·관리·서비스하기 어렵고, 규모가 매우 크며, 형태가 다양하고, 생성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빅데이터의 전형적인 특징인 3V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모두 '개방'이나 '데이터'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초점은 연구 성과·지식·데이터·소프트웨어의 접근과 공유에 있다. ④만 데이터 자체의 규모, 형태, 생성 속도와 기존 처리 기술의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기존 기술의 처리 한계와 함께 대규모·다양한 형태·빠른 생성이 제시되면 빅데이터로 판단한다. 접근, 공개, 공유, 참여, 협력 네트워크가 중심이면 오픈 사이언스·오픈 지식·오픈 데이터·오픈 소스 계열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빅데이터는 3V, 개방과학은 접근·공유·참여이다.

NoteBase

6. 색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정보의 위치를 선별해 주는 기능을 가지며 단행본의 권말색인이나 목차색인은 이러한 선별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전조합색인은 문헌의 주제를 구성하는 각 개념을 색인작업 시 미리 조합하여 이것을 단일표목으로 변환시키는 색인으로 열거식 분류와 주제명 색인이 여기에 속한다.

③ 후조합색인은 주제 분석을 통해 추출된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색인어의 선정 및 선정된 색인어의 다양한 어의적 관계를 색인어로 선택하는 색인을 말한다.

④ 통제어색인은 저자명, 표제, 기관명, 단체명, 프로젝트명, 특허번호나 규격번호 등과 같은 요소로서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를 색인의 표목으로 선택하는 색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색인의 기능과 전조합색인·후조합색인의 조합 시점, 통제어색인의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조합색인은 색인 작성 단계에서 여러 개념을 미리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 색인표목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열거식 분류와 주제명색인이 대표적이다.
후조합색인은 개념별 색인어를 독립적으로 부여하고, 검색 단계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색인어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통제어색인은 동의어·유사어 등의 표현을 통제하여 정해진 색인어로 주제를 일관되게 나타내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정보의 위치를 선별해 주는 기능'이다. 단행본의 권말색인이나 목차색인이 특정 내용이 있는 곳을 알려 주는 것은 선별 기능이 아니라 소재를 가리키는 지시 기능이다. 올바르게는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지시해 주는 기능'이라고 해야 한다.

② O
전조합색인은 문헌의 주제를 이루는 개념들을 색인 단계에서 미리 조합하여 하나의 색인표목으로 바꾼다. 열거식 분류와 주제명색인이 이에 해당하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선정된 색인어의 다양한 어의적 관계를 색인어로 선택'한다는 부분이다. 후조합색인의 결정적 특징은 색인어 사이의 관계를 미리 표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색인어를 독립적으로 부여한 뒤 검색할 때 조합한다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추출된 개념을 나타내는 색인어를 각각 부여하고 검색 단계에서 조합하는 색인'이라고 해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저자명·표제·기관명·단체명·프로젝트명·특허번호·규격번호처럼 주제와 직접 관계없는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통제어색인'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주제가 아닌 서지적 요소를 접근점으로 삼는 비주제색인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통제어색인은 통제된 어휘를 사용하여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는 색인'이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선별'과 '지시', ③의 '색인 단계'와 '검색 단계'를 바꾸어 읽기 쉽다. 또한 ④는 여러 접근점의 예를 나열하여 통제어색인처럼 보이게 하지만, 나열된 요소들은 주제어가 아니라 비주제 접근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념을 언제 결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색인 작성 때 미리 결합하면 전조합색인이고, 개별 색인어를 부여한 뒤 검색할 때 결합하면 후조합색인이다. 이어서 '내용의 위치를 알려 줌'은 지시 기능, '정해진 어휘로 주제를 표현함'은 통제어색인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조합은 색인할 때 미리 조합, 후조합은 검색할 때 나중 조합이다. 권말색인·목차의 위치 안내는 지시 기능이고, 통제어색인은 정해진 어휘로 주제를 표현한다.

NoteBase

7. 표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ISO 산하 기술 위원회 중 문헌정보 분야는 문헌정보기술위원회(TC46)에서 다루고 있으며, 도서관, 문서 및 정보센터, 색인 및 초록 서비스, 기록보존, 정보학 및 공표와 관련된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② MODS는 2002년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MARC, DC, ONIX, IMS, ODRL 등을 절충한 디지털도서관 영역의 범용 서지정보 표준 메타데이터이다.

③ 메타데이터는 분야별로 지리정보 CSDGM, 교육자료 LOM, 출판유통 CDWA, 기록물 EAD, 멀티미디어 MPEG-7 등이 있다.

④ 더블린코어(Dublin Core)는 1995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제안된 메타데이터로 16개 기본 데이터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준화 기구와 메타데이터 표준의 개발 주체·적용 분야·기본 요소 수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O/TC 46은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며 도서관, 기록관리, 색인·초록 서비스 등과 관련된 표준을 다룬다.

MODS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MARC 21에서 선택한 요소를 XML로 표현하도록 만든 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다.

분야별 표준은 CSDGM-지리정보, LOM-교육자료, CDWA-미술 작품, EAD-기록물 검색도구, MPEG-7-멀티미디어로 연결된다.

더블린코어는 자원을 간단히 기술하고 검색하기 위한 범용 메타데이터로, 기본 요소는 15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ISO/TC 46은 문헌정보와 도큐멘테이션 관련 표준화를 담당한다. 도서관, 문서·정보센터, 색인·초록 서비스, 기록보존, 정보학 및 공표와 관련된 절차가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MARC, DC, ONIX, IMS, ODRL 등을 절충한’이다. MODS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2002년에 개발한 XML 기반 서지 메타데이터 스키마이며, 여러 표준을 절충한 것이 아니라 MARC 21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출판유통 CDWA’이다. CDWA는 미술 작품과 문화유산을 기술하기 위한 범주이고, 출판유통 분야의 대표 표준은 ONIX이다. 따라서 올바른 연결은 ‘미술 작품·문화유산-CDWA, 출판유통-ONIX’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16개 기본 데이터 요소’이다. 더블린코어는 1995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출발했지만, 기본 요소는 16개가 아니라 15개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MODS가 여러 메타데이터의 장점을 섞은 표준처럼 보이게 하고, ③은 실제 표준명인 CDWA를 엉뚱한 분야에 연결한다. ④는 더블린코어의 제안 장소와 연도는 맞게 제시한 뒤 기본 요소 수만 16개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표준을 ‘담당 기관 또는 개발 주체-주요 대상-핵심 형식’의 세 축으로 확인한다. 특히 분야별 약어는 CSDGM의 지리정보, LOM의 교육자료, CDWA의 미술 작품, EAD의 기록물, MPEG-7의 멀티미디어 연결을 먼저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TC 46은 문헌정보 표준화, MODS는 MARC 21 기반 XML, CDWA는 미술 작품, 더블린코어는 15요소이다.

NoteBase

8. 다음 설명에 가장 적절한 것은?

> 한국 고문헌의 소재를 파악하고 목록, 해제, 원문 등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유일의 한국 고문헌의 종합목록으로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 유출된 한국 고문헌을 조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① KOLIS-NET　② RISS
③ 책바다　④ KORCIS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국 고문헌의 목록·해제·원문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목록 서비스와 다른 도서관·학술정보 서비스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ORCIS(한국고문헌종합목록)는 국내외 기관과 민간이 소장한 한국 고문헌을 조사·연계하여 목록, 해제, 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KOLIS-NET은 전국 공공도서관 등의 서지·소장 정보를 공동 구축·활용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이고, RISS는 학위논문·학술논문 등 학술자료를 검색·이용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며, 책바다는 도서관 간 자료를 빌려 이용하게 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KOLIS-NET'이라는 명칭이 틀렸다. KOLIS-NET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지·소장 정보를 공동 구축하고 활용하는 국가자료종합목록이다. 지문의 고문헌 목록·해제·원문 제공 서비스는 KORCIS로 고쳐야 한다.
② X — 'RISS'라는 명칭이 틀렸다. RISS는 국내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등 학술자료를 검색·이용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다. 지문의 설명에 맞는 명칭은 KORCIS이다.
③ X — '책바다'라는 명칭이 틀렸다. 책바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소속 도서관에 없을 때 다른 참여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빌려 이용하도록 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이다. 지문의 설명에 맞는 명칭은 KORCIS이다.
④ O — KORCIS는 국내외의 한국 고문헌 소장처를 조사·연계하여 고문헌의 목록, 해제, 원문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이므로 지문의 설명에 가장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 KOLIS-NET도 '종합목록'이고 ③ 책바다도 도서관 협력 서비스이므로 이름만 보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결정적 표현은 '한국 고문헌', '목록·해제·원문', '국내외 소장처 조사'이며, 이는 KORCIS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명을 고를 때 대상 자료와 핵심 기능을 함께 확인한다. 고문헌의 목록·해제·원문은 KORCIS, 공공도서관의 서지·소장 종합목록은 KOLIS-NET, 학위·학술논문은 RISS, 도서관 간 자료 대출은 책바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문헌은 KORCIS, 공공도서관 목록은 KOLIS-NET, 학술자료는 RISS, 상호대차는 책바다이다.

NoteBase

9. 재현율(Recall)과 정확률(Preci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개념의 조합 수준이 높아질수록 색인 어휘는 증가하지만, 한 색인표목 아래 색인되는 문헌의 수는 감소한다. 이것은 재현율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정확률은 전체 적합 문헌에서 적합 문헌이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③ 채택된 색인어와 동등관계에 있는 용어, 즉 동의어나 유의어, 다른 철자어, 약어 및 두문자어, 번역어 등을 통제하여 동일한 개념을 언제나 하나의 용어로 색인하는 것은 정확률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다.
   ④ 동일한 개념을 하나의 어형으로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을 취급한 문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어형을 통제하는 것은 재현율 향상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현율과 정확률의 분모가 무엇인지, 색인어의 조합 수준과 동등관계 통제가 각각 어느 검색 성능을 높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현율: 전체 적합 문헌 가운데 실제로 검색된 적합 문헌의 비율이다. 관련 문헌을 얼마나 빠짐없이 찾았는지를 나타낸다.
정확률: 검색된 전체 문헌 가운데 적합 문헌의 비율이다. 검색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관련 문헌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재현율은 '누락 최소화', 정확률은 '불필요한 검색 결과 최소화'가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개념의 조합 수준이 높아지면 색인어는 구체화되고 한 색인표목 아래 모이는 문헌 수가 감소하므로 검색 결과의 적합도가 높아지는 방향, 즉 정확률 향상과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재현율 향상 수단'이며, 올바르게는 '정확률 향상 수단'이다.

② X
'전체 적합 문헌'을 분모로 하여 그중 검색된 적합 문헌의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는 재현율이다. 틀린 표현은 '정확률'이며, 올바르게는 '재현율'이다. 정확률은 검색된 전체 문헌 중 적합 문헌의 비율이다.

③ X
동의어·유의어·약어·두문자어·번역어 등 동등관계의 여러 표현을 하나의 우선어로 통제하면, 어떤 표현으로 접근하더라도 같은 개념의 문헌을 함께 찾을 수 있어 누락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는 주로 재현율 향상 수단이다. 틀린 표현은 '정확률 향상 수단'이며, 올바르게는 '재현율 향상 수단'이다.

④ O
동일한 개념을 하나의 어형으로 통제하면 여러 표현 때문에 흩어졌던 동일 개념의 문헌이 함께 검색되어 적합 문헌의 누락이 감소한다. 이는 전체 적합 문헌 중 검색되는 적합 문헌의 비율인 재현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전체 적합 문헌'이라는 분모를 보고 재현율임을 판단해야 한다. ③과 ④는 모두 어휘 통제를 다루지만, 동등한 표현을 하나로 모아 검색 누락을 줄인다는 효과는 재현율과 연결된다. ①의 조합 수준 증가는 검색 표현을 구체화하여 검색 결과의 잡음을 줄이는 정확률 측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모가 전체 적합 문헌이면 재현율, 분모가 검색된 전체 문헌이면 정확률로 판단한다. 동의어를 한 우선어로 모아 누락을 줄이면 재현율,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조합하여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줄이면 정확률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재현율은 빠짐없이, 정확률은 쓸데없이 나온 문헌 없이이다. 동등어 통제는 같은 개념의 문헌을 모아 재현율을 높인다.

NoteBase

10. 의미의 집적도에 따른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능
② 데이터 – 지식 – 정보 – 지능
③ 정보 – 데이터 – 지식 – 지능
④ 정보 – 데이터 – 지능 – 지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데이터가 의미와 맥락을 얻고 판단에 활용되는 수준으로 발전할수록 의미의 집적도가 높아진다는 정보 위계를 묻는다.

핵심 개념

데이터: 관찰·측정으로 얻은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기호이다.
정보: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고 조직하여 의미와 맥락을 부여한 것이다.
지식: 정보를 이해하고 경험과 결합하여 문제 해결이나 행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지능: 축적된 지식을 종합·응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의미의 집적도는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능의 순서로 높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데이터가 처리되어 정보가 되고, 정보가 체계화되어 지식이 되며, 지식이 종합·응용되어 지능으로 발전하므로 올바른 배열이다.
② X — '지식 - 정보'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능'이다.
③ X — '정보 - 데이터'가 의미의 집적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가는 순서를 거꾸로 배열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능'이다.
④ X — '정보 - 데이터'와 '지능 - 지식'의 순서가 모두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능'이다.

오답 포인트

정보와 지식을 같은 수준으로 보거나, 단순한 원재료인 데이터를 정보보다 뒤에 두는 것이 함정이다. 또한 지능은 지식보다 앞선 재료가 아니라 지식을 종합하고 적용하는 더 높은 단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자료인가 → 의미가 부여되었는가 → 이해·활용 가능한 체계인가 → 종합하여 판단·문제 해결을 하는가'를 차례로 확인하면 데이터 → 정보 → 지식 → 지능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데이터는 재료, 정보는 의미, 지식은 활용 체계, 지능은 판단과 문제 해결이다.

NoteBase

11. 정보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FRBR 모델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 제안한 서지정보 기술 권고안으로서 개체-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② 확률 모델은 내용 표현과 검색을 위한 검색 질의의 표현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의 유사도 값에 따라 매칭여부를 결정하고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검색을 말한다.

③ 메타검색은 분산검색이라고도 하며 이용자가 요청한 질의어를 디지털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내외부의 장서 시스템들에게 전달하여 해당 시스템에서 수행된 검색 결과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검색을 수행한다.

④ 벡터공간 모델은 문헌과 질의를 각각 용어 벡터 형태로 표현한 다음 두 벡터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검색 문헌들을 순위화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검색에서 FRBR, 확률모형, 메타검색, 벡터공간모형의 정의와 작동 원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확률모형과 유사도 임계값에 따른 매칭 방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개념

FRBR: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제안한 서지정보의 개념 모형으로, 개체·관계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확률모형: 질의에 대해 문헌이 적합할 확률을 추정하고 그 확률에 따라 검색 결과를 순위화하는 모형이다.
메타검색: 자체 검색 대상만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검색 시스템에 질의를 전달한 뒤 각 시스템의 결과를 모아 제공하는 방식이다.
벡터공간모형: 문헌과 질의를 용어 가중치 벡터로 표현하고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문헌을 순위화하는 모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FRBR은 IFLA가 제안한 서지정보 기술 권고안으로, 서지 세계의 개체와 그 관계를 구조화하는 개체·관계 모형에 기초한다.

② X — 틀린 부분은 '내용 표현과 검색질의 표현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의 유사도 값에 따라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확률모형은 문헌이 이용자의 질의에 적합할 확률을 추정하고 그 확률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순위화한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질의에 대한 문헌의 적합 확률을 추정하여 문헌을 순위화하는 정보검색 모형'이라고 해야 한다.

③ O — 메타검색은 분산검색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질의를 여러 내·외부 검색 시스템에 전달하고 각 시스템이 수행한 검색 결과를 통합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④ O — 벡터공간모형은 문헌과 질의를 각각 용어 벡터로 나타내고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유사도가 높은 문헌부터 순위화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유사도'라는 말 때문에 확률모형도 관련성 정도를 다루는 모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 판단의 결정어는 '일정한 기준의 유사도 값에 따라 매칭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이다. 확률모형의 핵심은 유사도 임계값에 의한 매칭이 아니라 적합 확률의 추정과 순위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형의 이름을 작동 원리와 연결한다. '개체와 관계'는 FRBR, '적합 확률 추정'은 확률모형, '여러 검색 시스템에 질의 전달'은 메타검색, '용어 벡터와 유사도 계산'은 벡터공간모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RBR은 개체·관계, 확률모형은 적합 확률, 메타검색은 여러 시스템 통합, 벡터공간모형은 벡터 유사도이다.

NoteBase

12. 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RISS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이다.

② dCollection은 대학 학술정보가 생산과 동시에 유통, 보존되는 최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국가적 지식정보 디지털 유통 시스템이다.

③ 국가서지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 보존하고 있는 국내 출판물과 각종 지식정보를 대상으로, 기존 MARC 또는 메타데이터를 SGML 형태로 변환하여 웹상에 Linked Open Data 형식으로 발행한 서비스이다.

④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지식정보 포털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RISS, dCollection, 국가서지 LOD, NTIS의 기능과 각 서비스가 사용하는 정보 표현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RISS는 대학이 생산·보유·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검색하고 공동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다.
dCollection은 대학의 학술정보를 수집하여 유통하고 보존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이다.
국가서지 LOD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전거 데이터를 웹에서 서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RDF 기반의 링크드 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과제·연구자·성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R&D 지식정보 포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RISS는 전국 대학이 생산·보유·구독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대국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O — dCollection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 등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유통·보존하는 기관 리포지터리 시스템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MARC 또는 메타데이터를 SGML 형태로 변환'한다는 부분이다. 링크드 오픈 데이터는 데이터를 주어·서술어·목적어의 구조로 표현하고 연결하는 RDF를 기반으로 하므로, 올바르게는 기존 서지·전거 메타데이터를 R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웹에 Linked Open Data로 발행한다고 해야 한다.
④ O —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 과제, 연구자, 성과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R&D 지식정보 포털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웹상의 Linked Open Data'라는 뒤쪽 표현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핵심 변환 형식을 SGML이라고 바꿔 놓았다. SGML은 문서의 구조를 기술하는 마크업 언어이고, LOD의 핵심 데이터 표현 모델은 RDF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명마다 핵심 기능과 기술 키워드를 연결해 판단한다. RISS는 학술자원 공동 이용, dCollection은 대학 학술정보의 수집·유통·보존, 국가서지 LOD는 RDF 기반 데이터 연결, NTIS는 국가 R&D 정보 통합 제공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RISS는 학술자원, dCollection은 대학 리포지터리, LOD는 RDF, NTIS는 국가 R&D 정보이다.

NoteBase

13. 정보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접 연산자는 연속해서 오는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검색하는 것을 말하며, AND와 비슷하나 두 단어가 일정 거리 내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AND보다 구체적인 연산자이다.

② AND 연산자는 제시된 여러 용어 가운데서 어느 한 용어에 해당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③ Boolean Logic은 논리식의 조합을 위해 세 가지 연산자(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사용한 George Boolean에서부터 따온 이름이다.

④ NOT 연산자는 검색을 좁히고 분명하게 하며, 한 개념과 연관되는 다른 개념을 동시에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인접 연산자와 Boolean 연산자(AND, OR, NOT)의 기능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접 연산자: 두 검색어가 서로 이웃하거나 지정한 거리 안에 나타나는 자료를 찾는 연산자이다. 단순 AND보다 검색어의 위치 관계를 추가로 제한한다.
AND: 제시한 검색어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를 찾는다.
OR: 제시한 검색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자료를 찾는다.
NOT: 특정 검색어를 포함한 자료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한다.
Boolean Logic: George Boole의 논리 체계에서 유래하며, 정보검색에서는 AND, OR, NOT을 기본 연산자로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인접 연산자는 검색어들이 서로 인접하거나 일정 거리 안에 나타나도록 제한한다. 두 검색어의 포함만 요구하는 AND보다 위치 조건까지 지정하므로 더 구체적인 검색이 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어느 한 용어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AND는 제시된 여러 용어를 모두 포함하는 정보를 검색한다. 어느 한 용어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는 연산자는 OR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와 'George Boolean'이다. Boolean Logic은 George Boole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정보검색의 기본 Boolean 연산자는 AND, OR, NOT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연관되는 다른 개념을 동시에 검색'한다는 부분이다. NOT은 특정 개념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여 검색 범위를 좁히는 데 사용한다. 두 개념을 동시에 포함한 자료를 찾을 때는 AND를 사용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AND와 OR의 포함 조건을 바꾸었고, ④는 NOT의 제외 기능과 AND의 동시 포함 기능을 섞었다. ③은 Boolean을 일반 산술연산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과 인명 오류를 함께 제시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두 포함이면 AND, 하나 이상 포함이면 OR, 특정 용어 제외이면 NOT, 검색어 사이의 위치나 거리를 제한하면 인접 연산자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AND는 모두, OR는 하나 이상, NOT은 제외, 인접 연산자는 거리 제한이다.

NoteBase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① 사물인터넷　② 인공지능
③ 클라우드 컴퓨팅　④ 챗GP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정보통신자원을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하게 하는 정보처리체계의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저장공간·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의 공유 정보통신자원을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제공받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핵심 키워드는 '공유 자원', '수요에 따른 이용', '신속한 제공'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부여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고, 인공지능은 학습·추론·판단 등의 지능적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ChatGPT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의 하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교환하는 기술이다. 제시문의 '공유 정보통신자원을 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한다는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사물인터넷'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인공지능은 학습·추론·판단 등 인간의 지능적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하는 기술이다. 제시문은 지능적 처리 기능이 아니라 공유된 서버·설비·소프트웨어 등의 자원을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체계를 설명한다. 틀린 표현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클라우드 컴퓨팅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용하게 하는 정보처리체계이므로 제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④ X
Chat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화형 서비스로, 공유 정보통신자원 자체를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ChatGPT'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이나 ChatGPT를 고르면 안 된다. 정답을 가르는 표현은 '집적·공유된 자원'과 '수요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이용'이며,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자원 제공 방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유된 컴퓨팅 자원',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제공'이 함께 제시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판단한다. '사물 간 연결'은 사물인터넷, '학습·추론'은 인공지능, '대화 생성 서비스'는 ChatGPT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공유 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네트워크로 이용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NoteBase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 유니텀(Uniter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이용하여 조합색인(Coordinating indexing) 기법을 창안한 것으로 유명하며, 불리언 논리를 정보검색의 영역에 도입한 사람이다.

① Eugine Garfield ② Calvin N. Mooers
③ Mortimer Taube ④ Gordon Moor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니텀(Uniterm), 조합색인(Coordinating indexing), 불리언 논리라는 핵심어를 해당 인물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Mortimer Taube: 유니텀을 이용한 조합색인 기법을 제안하여 여러 단일 개념어를 조합해 문헌을 검색하도록 하였다.
Eugene Garfield: 인용 관계를 이용해 관련 문헌을 찾는 인용색인과 연결되는 인물이다.
Calvin N. Mooers: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이라는 용어와 자토코딩(Zatocoding) 시스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Gordon Moore: 집적회로의 부품 수가 일정한 주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과 연결되는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Eugene Garfield는 인용색인의 발전과 관련된 인물이다. 틀린 연결은 '유니텀과 조합색인의 창안자'이며, 올바르게는 Mortimer Taube이다.
② X — Calvin N. Mooers는 정보검색이라는 용어와 자토코딩 시스템에 연결된다. 틀린 연결은 '유니텀과 조합색인의 창안자'이며, 올바르게는 Mortimer Taube이다.
③ O — Mortimer Taube는 유니텀 개념을 사용하고, 유니텀들을 불리언 논리로 조합하여 검색하는 조합색인 기법을 제안한 인물이다.
④ X — Gordon Moore는 반도체 집적도의 증가를 설명하는 무어의 법칙과 관련된 인물이다. 틀린 연결은 '유니텀과 조합색인의 창안자'이며, 올바르게는 Mortimer Taube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Garfield와 Mooers도 정보검색 분야의 대표 인물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용색인'은 Garfield, '정보검색 용어·자토코딩'은 Mooers, '유니텀·조합색인'은 Taube로 구분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대표 키워드를 먼저 대응한다. 유니텀·조합색인이 함께 제시되면 Mortimer Taube, 인용색인이면 Garfield, 정보검색 용어·자토코딩이면 Mooers, 반도체 집적도 증가이면 Moore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Taube = Uniterm = 조합색인이다.

NoteBase

16.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내 학·연·산 기관들이 학술연구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참가기관과 정보공급사를 위한 다양한 전자정보 구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KESLI ② ABI/INFORM
③ ScienceON ④ S-spac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의 목적과 지원 내용을 보고 해당 서비스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ESLI는 국내 학·연·산 기관이 전자정보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구독·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컨소시엄이다. 핵심 단서는 '전자정보 공동구매'와 '컨소시엄 참가 기관의 구독 지원'이다.
ABI/INFORM은 경영·경제 분야의 학술저널, 산업정보, 기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 전문 데이터베이스이다.
ScienceON은 과학기술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서비스이다.
S-Space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성과물을 수집·보존·공개하는 기관 리포지터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KESLI는 국내 학·연·산 기관의 전자정보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컨소시엄으로, 제시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② X — ABI/INFORM은 경영·경제 분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이므로 공동구매 컨소시엄이 아니다. 틀린 표현 'ABI/INFORM'은 'KESLI'로 고쳐야 한다.
③ X — ScienceON은 논문·특허·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의 통합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이 아니다. 틀린 표현 'ScienceON'은 'KESLI'로 고쳐야 한다.
④ X — S-Space는 서울대학교의 학술·연구 성과물을 보존하고 공개하는 기관 리포지터리이므로 제시문의 컨소시엄 사업과 다르다. 틀린 표현 'S-Space'는 'KESLI'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네 선지는 모두 학술정보의 검색·이용과 관련되지만 서비스의 기능이 다르다. 특히 ScienceON도 국내 학술·과학기술정보를 지원하므로 혼동하기 쉽지만, 제시문의 결정적 표현은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 이름보다 제시문의 운영 방식과 제공 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기관 공동구매·컨소시엄·구독 조건 지원’이면 KESLI, ‘경영 전문 데이터베이스’이면 ABI/INFORM, ‘과학기술정보 통합 활용’이면 ScienceON, ‘서울대학교 기관 리포지터리’이면 S-Space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KESLI는 전자정보 공동구매, ABI/INFORM은 경영정보, ScienceON은 과학기술정보, S-Space는 서울대학교 연구성과 저장소이다.

NoteBase

17. 데이터베이스, 주제 분야, 발행처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A&HCI - 과학·공학 - Clarivate Analytics
② ProQuest Central - 경영학 - ProQuest
③ PDU(PQDT, DDOD) - 석박사학위논문 - ProQuest
④ Academic Search Complete - 전주제분야 - Elsevier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명칭, 수록 주제·자료 유형, 제공사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HCI는 예술·인문학 분야의 인용색인이고, ProQuest Central과 Academic Search Complete는 여러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전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이다. PDU(PQDT, DDOD)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다루는 ProQuest 계열 데이터베이스이다.
판단의 핵심은 데이터베이스 이름만 보지 않고 '주제·자료 유형'과 '제공사'를 각각 확인하는 데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A&HCI의 제공사는 Clarivate Analytics로 연결되지만, 주제 분야를 '과학·공학'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A&HCI는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약자로 예술·인문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올바르게는 'A&HCI－예술·인문학－Clarivate Analytics'이다.

② X
ProQuest Central의 제공사는 ProQuest이지만, 이를 '경영학'이라는 단일 분야 데이터베이스로 한정한 부분이 틀렸다. ProQuest Central은 경영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인문학,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다. 올바르게는 'ProQuest Central－전 주제 분야－ProQuest'이다.

③ O
PDU(PQDT, DDOD)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검색·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이고 제공사는 ProQuest이므로 세 요소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④ X
Academic Search Complete를 전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로 본 것은 맞지만, 제공사를 'Elsevier'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Academic Search Complete는 EBSCO가 제공한다. 올바르게는 'Academic Search Complete－전 주제 분야－EBSCO'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ProQuest Central에 경영학 자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경영학 전용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이게 한 선지이다. ④는 전 주제 분야라는 설명은 맞지만 제공사를 Elsevier로 바꾸어 놓았다. 하나의 요소만 맞는지 보지 않고 세 요소가 모두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를 '데이터베이스명－주제 또는 자료 유형－제공사'의 세 칸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A&HCI는 예술·인문학, PQDT 계열은 학위논문, ProQuest Central과 Academic Search Complete는 전 주제 분야라는 핵심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제공사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A&HCI＝예술·인문학·Clarivate, PQDT＝학위논문·ProQuest, Academic Search Complete＝전 주제·EBSCO이다.

NoteBase

18. 색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용색인의 효시는 1873년에 만들어진 「법률정보인용집(Law's Citations)」으로 알려져 있다.

② 인용색인의 작성 절차는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인용색인을 자동으로 처리한 첫 번째 사례는 1997년에 만들어진 Scopus이다.

③ Mooers는 미국의 초기 정보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SMART, 벡터공간 모델, SDI 등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④ 어느 한 문헌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출현 빈도순으로 배열하여 순위를 매기면 출현 빈도와 순위를 곱한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Zipf의 제1법칙'이라고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용색인의 기원, 자동 인용색인, 정보검색 분야 주요 학자의 업적, Zipf의 제1법칙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용색인은 문헌 사이의 인용 관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색인이다. 초기의 대표적 법률 인용색인은 1873년의 Shepard's Citations이며, CiteSeer는 자동 인용 추출과 색인화를 구현한 시스템이다. SMART와 벡터공간 모델은 Gerard Salton, SDI는 Hans Peter Luhn과 연결된다. Zipf의 제1법칙은 단어를 출현 빈도순으로 배열할 때 순위와 빈도의 곱이 대체로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법률정보인용집(Law's Citations)'이다. 1873년에 시작된 초기의 대표적 법률 인용색인은 Frank Shepard의 Shepard's Citations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1997년에 만들어진 Scopus'이다. 자동 인용 추출과 색인화를 구현한 초기 시스템은 1997년에 개발된 CiteSeer이며, Scopus는 2004년에 출시된 인용·초록 데이터베이스이다.

③ X
Mooers가 미국의 초기 정보과학자라는 부분은 맞지만, SMART와 벡터공간 모델 및 SDI를 모두 Mooers가 소개했다는 부분이 틀리다. SMART와 벡터공간 모델은 Gerard Salton, SDI는 Hans Peter Luhn과 연결된다. Mooers의 대표적 업적은 'information retrieval'이라는 용어, Zatocoding, Mooers의 법칙 등이다.

④ O
한 문헌의 단어를 출현 빈도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빈도는 순위에 대체로 반비례하므로 순위와 출현 빈도의 곱이 일정해진다. 이는 Zipf의 제1법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연도는 맞지만 인용색인의 명칭을 바꾸었고, ②는 1997년이라는 시점을 Scopus와 잘못 연결했다. ③은 Mooers, Salton, Luhn의 업적을 한 사람의 업적으로 묶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시스템·법칙을 핵심어로 짝지어 판단한다. Shepard–법률 인용색인, CiteSeer–자동 인용색인, Salton–SMART·벡터공간 모델, Luhn–SDI, Mooers–정보검색 용어·Zatocoding, Zipf–순위와 빈도의 곱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Shepard는 법률 인용, CiteSeer는 자동 인용, Salton은 SMART·벡터, Luhn은 SDI, Zipf는 순위×빈도이다.

NoteBase

19. 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안내 서비스는 이용자와 외부 정보자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방법론을 처음으로 정보서비스에 결합한 사람은 바브렉(Bernard Vavrek)이다. 그는 샤논(C, E, Shannon)과 레틱(James Rettig)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응용하여 참고면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③ 커뮤니케이션은 참고면담의 과정이며 어원상 '알리다', '참여하다'라는 뜻 외에 '공유하다(Share)', '교환하다(Exchange)' 등의 의미도 있다.

④ Information은 라틴어의 Information-en에서 유래한 낱말로 16세기 영어에 채용되었다. 또한 Information은 동사 'Inform'과 접미어 '-ation'이 결합하여 명사가 된 형태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의 범위, 참고면담의 커뮤니케이션적 성격, 정보의 어원과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학자·발전 순서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보안내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도서관 밖의 적절한 정보원이나 기관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참고면담은 이용자와 사서가 질문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정보요구를 구체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바브렉은 샤논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참고면담에 적용했고, 레틱은 그 뒤 바브렉의 모델을 보완·발전시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안내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를 자체 자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적절한 외부 정보자원이나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샤논과 레틱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응용하여'이다. 바브렉이 응용한 것은 샤논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 레틱은 바브렉보다 뒤에 바브렉의 모델을 보완·발전시켜 자신의 참고과정 모델을 제시했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바브렉은 샤논과 위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응용하여 참고면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이다.

③ O — 참고면담은 이용자와 사서가 질문·응답·피드백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어원상 알리다와 참여하다뿐 아니라 공유하다와 교환하다는 뜻도 포함되므로 옳다.

④ O — Information의 어원을 라틴어 information-en에서 찾고, 16세기에 영어에 채용되었다고 보는 설명에 해당한다. 또한 information은 동사 inform에 명사형 접미어 -ation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바브렉이라는 학자명과 '처음으로 결합했다'는 앞부분은 맞게 두고, 모델의 원천인 위버를 후대 학자인 레틱으로 바꾸었다. 학자 이름이 여러 명 제시되면 모델의 구성 요소뿐 아니라 발표·발전 순서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커뮤니케이션 모델 관련 선지는 '샤논·위버 → 바브렉의 참고면담 적용 → 레틱의 보완·발전' 순서로 판단한다. 정보안내 서비스는 '외부 정보원과의 연결', 참고면담은 '질문과 피드백을 통한 의미 공유'가 핵심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샤논·위버를 바브렉이 적용하고, 바브렉을 레틱이 발전시켰다.

NoteBase

20.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협동수서 기능은 도서관 협동이 시작되던 초창기부터 제안되고 실행됐던 기능으로, 분담수집, 공동구입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의 파밍턴 플랜(Farmington plan)이 초기 협동 프로그램으로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② 상호대차란 일반적으로 한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타 도서관으로부터 빌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도서관 자료의 상호 교류 활동을 말한다.

③ 공동편목 기능은 자동화된 도서관 네트워크가 생기기 이전에 전통적 도서관 협동체로서 활동할 때도 있었던 협동의 기본 기능이었다.

④ OCLC는 1967년 미국 오하이오주 내의 대학 도서관에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회원조직인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로 출발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서관 협동의 주요 기능과 OCLC의 설립 당시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협동수서는 여러 도서관이 주제·지역 등을 나누어 자료를 분담 수집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 방식이다.
상호대차는 한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복제물을 제공받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이다.
공동편목은 여러 도서관이 서지·목록 레코드를 공동으로 작성하거나 공유하여 편목의 중복을 줄이는 활동이다.
OCLC는 1967년 Ohio College Library Center라는 명칭으로 출범했으며,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라는 명칭은 1981년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협동수서는 도서관 협동 초기부터 이루어진 대표적 기능이며, 분담수집과 공동구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파밍턴 플랜은 미국 연구도서관들이 외국 출판물의 수집 책임을 분담한 대표적인 협동수서 사례이다.
② O — 상호대차는 이용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복제물을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 간 자료 교류 활동이다.
③ O — 공동편목은 자동화 네트워크 이전에도 공동 목록 작성, 목록카드 공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도서관 협동의 기본 기능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OCLC가 1967년에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로 출발했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1967년 오하이오주의 대학도서관 협력을 위해 ‘Ohio College Library Center’로 출범했으며,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라는 명칭은 1981년에 채택되었다.

오답 포인트

④의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는 OCLC의 후대 명칭이어서 익숙하지만, 이를 1967년의 설립 당시 명칭으로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OCLC의 설립 연도와 명칭 변경 연도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서관 네트워크 문항에서는 기능의 정의와 기관의 연혁을 나누어 판단한다. 기능은 ‘수집의 분담=협동수서, 자료의 대여·제공=상호대차, 목록 레코드의 공동 작성·공유=공동편목’으로 구별하고, OCLC는 1967년의 Ohio와 1981년의 Online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OCLC는 1967년 Ohio College Library Center로 출발하고, 1981년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로 명칭이 바뀌었다.

NoteBase

21. 다음 설명에 가장 적절한 것은?

> 인터넷 지식문화 유산의 보존 및 영구적 이용을 위한 활동이다. 디지털 지식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웹자원 아카이브 사업이다.

① OAK국가리포지터리
② OASIS
③ 국가전자도서관
④ NDSL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지식문화유산인 웹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제공하는 웹 아카이빙 사업의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지식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서비스하는 웹자원 아카이브이다.
OAK 국가리포지터리는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보존·관리하고 자유롭게 공유·확산하는 오픈액세스 아카이브이다.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내 주요 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를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고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NDSL은 학술논문·특허·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를 통합 제공하던 국가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OAK 국가리포지터리는 기관이 생산한 학술·연구 지식정보의 보존과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리포지터리이다. 제시문의 '국가 차원의 웹자원 수집·보존' 사업을 가리키는 명칭은 OAK 국가리포지터리가 아니라 OASIS이다.
② O — OASIS는 인터넷상의 디지털 지식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이용하게 하고 후대에 전승하려는 웹자원 아카이브 사업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내 주요 도서관을 연계하여 구축된 디지털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통합검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제시문의 사업에 알맞은 명칭은 국가전자도서관이 아니라 OASIS이다.
④ X — NDSL은 학술논문·특허·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시문의 웹자원 아카이브 사업에 알맞은 명칭은 NDSL이 아니라 OASIS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리포지터리'와 ③의 '전자도서관'도 디지털 자료의 저장·제공과 관련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의 결정적 표현은 '디지털 지식문화유산', '국가적 차원의 수집·보존', '웹자원 아카이브'이며, 이 조합은 OASIS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웹사이트 등 인터넷 자원의 국가적 수집·보존이면 OASIS, 기관 연구성과의 오픈액세스 공유이면 OAK, 여러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의 연계·통합검색이면 국가전자도서관, 과학기술정보의 통합 제공이면 NDSL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OASIS는 웹자원 보존, OAK는 기관 연구성과의 오픈액세스, 국가전자도서관은 도서관 연계, NDSL은 과학기술정보이다.

NoteBase

22. WorldCat.or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책, 오디오북, 지도, 악보, 녹음과 같은 실물 항목과 함께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책, 전자 저널, 기사, 디지털 이미지와 같은 전자 항목을 찾을 수 있다.

② WorldCat Search는 WorldCat.org를 앱으로 확장한 것으로, 누구나 WorldCat.org에 있는 수천 개의 라이브러리 컬렉션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③ 수천 개의 도서관 컬렉션을 한 곳에 연결하면 WorldCat.org를 통해 하나의 검색창에서 전 세계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다.

④ 도서관이 학습, 연구,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서비스, 독창적인 연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 도서관 단체인 OCLC에서 제공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WorldCat.org의 공개 통합검색 기능, WorldCat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범위, WorldCat Search API의 성격, OCLC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WorldCat은 전 세계 도서관의 서지·소장 정보를 모은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이고, WorldCat.org는 누구나 이를 검색하여 자료와 소장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공개 웹사이트이다.
WorldCat Search API는 응용프로그램이 WorldCat을 검색하고 서지·소장 정보를 받아 가도록 하는 기계 간 연계 수단이다. 일반 이용자용 검색 앱이나 WorldCat.org 자체의 확장판을 뜻하지 않는다.
OCLC는 WorldCat을 운영하며 도서관에 공유 기술 서비스, 연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도서관 협동조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WorldCat에서는 책, 오디오북·녹음자료, 지도, 악보 같은 실물 자료뿐 아니라 전자책, 전자저널, 기사, 디지털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에 관한 서지·소장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 가능 자료는 제공되는 접근 링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② X — 틀린 표현은 'WorldCat.org를 앱으로 확장한 것'과 '누구나'이다. WorldCat Search는 일반 이용자용 앱이 아니라 응용프로그램이 WorldCat의 서지 레코드와 소장 도서관 정보를 검색·조회하도록 하는 API이다. 누구나 웹에서 수천 개 도서관의 자료를 한 번에 찾는 기능은 WorldCat.org에 대한 설명이다.
③ O — WorldCat.org는 전 세계 수천 개 도서관의 컬렉션 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검색창에서 자료와 소장 도서관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④ O — OCLC는 도서관의 학습·연구·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기술 서비스, 도서관 관련 연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도서관 협동조직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WorldCat.org의 공개 통합검색 기능을 WorldCat Search API의 기능처럼 바꾸어 놓았다. 이름에 'Search'가 들어가더라도 일반 이용자용 앱이라는 뜻은 아니며, '웹사이트'와 'API'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누구나 하나의 검색창에서 전 세계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면 WorldCat.org, '응용프로그램이 서지·소장 데이터를 검색·조회'하면 WorldCat Search API, '서비스·연구·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협동조직'이면 OCLC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WorldCat은 데이터베이스, WorldCat.org는 공개 검색 웹사이트, WorldCat Search는 API, OCLC는 운영 협동조직이다.

NoteBase

23. 참고질문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구형 질문
② 즉답형 질문
③ 지시형 질문
④ 정보형 질문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참고질문을 해답에 필요한 탐색의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지시형·즉답형·조사형·연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시형 질문: 자료의 소장 여부·위치·이용 방법처럼 해답 자체보다 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다.
즉답형 질문: 한두 개의 기본 참고정보원만 확인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을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조사형 질문: 여러 정보원을 탐색하고 내용을 비교·종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연구형 질문: 특정 주제에 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한 질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연구형 질문은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심층 탐색이 필요한 참고질문의 유형이므로 적절하다.
② O — 즉답형 질문은 소수의 기본 참고정보원으로 간단한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참고질문의 유형이므로 적절하다.
③ O — 지시형 질문은 자료의 위치, 소장 여부, 이용 방법 등 정보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참고질문의 유형이므로 적절하다.
④ X — '정보형 질문'은 이 분류에서 독립된 참고질문 유형으로 쓰이는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정보형 질문'은 '조사형 질문'으로 고쳐야 하며, 조사형 질문은 여러 정보원을 탐색·종합하여 답하는 유형이다.

오답 포인트

참고질문 자체가 정보에 관한 질문이라는 점 때문에 ④의 '정보형 질문'도 정식 하위 유형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표준적인 네 유형 가운데 빠진 명칭은 '조사형 질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의 위치·이용법이면 지시형, 간단한 사실 확인이면 즉답형, 여러 정보원의 비교·종합이면 조사형, 광범위한 심층 탐색이면 연구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참고질문의 네 유형은 '지시-즉답-조사-연구'이다.

NoteBase

24. 크럼의 참고과정모델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정보요구 – 1차 질문 – 면담과 회의 – 재구성된 질문 – 탐색전략 – 탐색 매카니즘 – 1차 반응 – 반복된 반응

② 정보요구 – 1차 질문 – 탐색전략 – 면담과 회의 – 재구성된 질문 – 탐색 매카니즘 – 1차 반응 – 반복된 반응

③ 정보요구 – 1차 질문 – 면담과 회의 – 탐색전략 – 탐색 매카니즘 – 1차 반응 – 재구성된 질문 – 반복된 반응

④ 정보요구 – 1차 질문 – 재구성된 질문 – 면담과 회의 – 탐색전략 – 탐색 매카니즘 – 1차 반응 – 반복된 반응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크럼의 참고과정모델에서 이용자의 막연한 정보요구가 질문의 명료화와 탐색을 거쳐 응답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정보요구 — 이용자가 해결하려는 정보상의 필요가 생기는 단계이다.
2. 1차 질문 —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요구를 처음 질문의 형태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3. 면담과 회의 — 사서와 이용자가 대화하며 질문의 의미와 범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4. 재구성된 질문 —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탐색에 적합한 질문을 만드는 단계이다.
5. 탐색전략 — 어떤 정보원과 접근점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찾을지 계획하는 단계이다.
6. 탐색 메커니즘 — 세운 전략을 검색도구와 검색기법을 통해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이다.
7. 1차 반응 — 최초 탐색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적합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8. 반복된 반응 —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질문이나 탐색을 조정하여 응답을 반복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면담을 통해 1차 질문을 재구성해야 탐색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전략을 탐색 메커니즘으로 실행해야 비로소 1차 반응과 반복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요구에서 출발하여 1차 질문을 면담으로 명료화하고, 재구성된 질문에 따라 탐색전략과 탐색 메커니즘을 거친 뒤 1차 반응과 반복된 반응으로 이어지는 올바른 순서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탐색전략'이 '면담과 회의' 및 '재구성된 질문'보다 앞에 놓인 점이다. 질문의 의미와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적절한 탐색전략을 세울 수 없다. 올바르게는 '1차 질문 → 면담과 회의 → 재구성된 질문 → 탐색전략'의 순서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탐색전략'과 '탐색 메커니즘'을 '면담과 회의' 직후에 두고 '재구성된 질문'을 1차 반응 뒤에 둔 점이다. 재구성된 질문은 탐색의 기준이므로 탐색전략과 탐색 메커니즘보다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면담과 회의 → 재구성된 질문 → 탐색전략 → 탐색 메커니즘 → 1차 반응'의 순서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재구성된 질문'을 '면담과 회의'보다 앞에 둔 점이다. 재구성된 질문은 면담을 통해 1차 질문을 명료화한 결과이다. 올바르게는 '1차 질문 → 면담과 회의 → 재구성된 질문'의 순서이며, 그 뒤에 탐색전략과 탐색 메커니즘이 이어진다.

오답 포인트

핵심 함정은 '면담과 회의', '재구성된 질문', '탐색전략'의 선후관계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면담은 재구성된 질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재구성된 질문은 탐색전략을 세우기 위한 전제이다. 또한 1차 반응은 탐색 실행 뒤에 나오며, 반복된 반응은 그 결과를 보완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선지는 '요구 발생 → 질문 표현 → 면담을 통한 명료화 → 탐색용 질문 확정 → 전략 수립 → 탐색 실행 → 최초 응답 → 보완 응답'의 인과관계로 판단한다. 특히 면담의 산출물이 재구성된 질문이고, 탐색전략의 실행 수단이 탐색 메커니즘이라는 관계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요구-질문-면담-재질문-전략-메커니즘-1차 반응-반복 반응의 순서로 기억한다.

NoteBase

25. 정보서비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트릭스(Matrix) 조직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조직 단위이다.

② 계층형 조직은 구성원의 종적 연계를 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이다. 계층형 조직은 일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 업무분담, 조직 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관계 등이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조직이다.

③ 네트워크형 조직은 도서관의 기획, 인사, 예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관리운영 권한이 중앙도서관에 집중된 경우를 말한다. 이 조직은 부서의 업무 결정권과 관리권이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사서의 자립성과 민주성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④ 분산식 조직은 기업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운용에 관한 일부, 그리고 모든 기능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도 외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정보서비스 조직의 유형별 정의와 권한·업무 배분 방식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계층형 조직: 상하 위계와 수직적 명령·보고 관계를 중심으로 책임, 권한, 업무를 분명히 나누는 피라미드형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 기능별 조직과 사업·프로젝트별 조직을 결합하여 구성원이 두 조직 축의 지휘·조정을 받는 조직이다.
네트워크형 조직: 비교적 자율적인 조직 단위들이 수평적 연결망을 이루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조직이다.
분산식 조직: 정보시스템의 기능·자원·권한을 여러 부서나 단위에 나누어 배치하는 조직이다.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아웃소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설명은 팀 조직의 특징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프로젝트별 조직을 결합한 이중 구조라고 고쳐야 한다.
② O — 계층형 조직은 구성원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책임과 권한의 한계, 업무 분담, 공식적 의사소통 경로가 명확하여 조직관계를 이해하기 쉽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③ X — '전반적인 관리운영 권한이 중앙도서관에 집중되고 의사결정권과 관리권이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는 내용은 중앙집중식 조직의 설명이다. 네트워크형 조직은 자율적인 조직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하는 구조라고 고쳐야 한다.
④ X —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용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분산식 조직이 아니라 아웃소싱의 설명이다. 분산식 조직은 정보시스템의 기능·자원·권한을 여러 부서나 단위에 분산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조직의 일반적 장점을 제시한 뒤 조직 명칭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①의 '소수·공동 목표·공동 책임'은 팀 조직, ③의 '중앙도서관과 상위계층에 권한 집중'은 중앙집중식 조직, ④의 '외부 위탁'은 아웃소싱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 명칭보다 권한과 업무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먼저 본다. 수직적 위계는 계층형, 기능과 프로젝트의 이중 축은 매트릭스형, 자율 단위의 수평적 연결은 네트워크형, 외부 위탁은 아웃소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계층형은 수직 위계, 매트릭스형은 이중 축, 네트워크형은 수평 연결, 아웃소싱은 외부 위탁이다.

NoteBase